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창업강국의 비전과 전략  
발제자 :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23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9월 8일 정책세미나에서는 박용호 청년위원장을 연사로 창업강국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뉴노멀 시대(New Normal, 저성장·저소득·저금리가 새로운 경제적 표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저성장,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마다 비슷한 컨텐츠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작하였다. Startup America Initiative는 창업 장벽 제거, 멘토와 창업가 연결, R&D 사업화 촉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을 슬로건으로 한 창조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 리옹 보르도 등 주요 14개 도시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네덜란드는 스타트업델타(StartupDelta)로 창업을 보편화시켰다. 다양한 혜택으로 외국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내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 萬眾創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600억 위안(약 10.5조 원)을 투자했다.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에서 1위안(약 180원)으로 줄여 창업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으로 중국 청년들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가지게 되었다.

■ 한국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개념이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스타트업은 창

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경험, 마케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00곳의 스타트업, 1600곳의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380개 스타트업에 3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시켜줬고, 2000개 기업에 9천억 원의 대출을 연결해주었다. 한국은 훌륭한 인적 자원, 최고의 과학기술·ICT 경쟁력,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 정부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문화와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였다. 한국의 저력이 창조경제를 만나서 도전, 열정, 창의성, 집단지성의 문화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융합 되어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배려가 기반이 되는 문화로 성숙되고 있다. 한국의 창업선도국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우간다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1년에 10만 개 정도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기업은 3만 개, 투자된 금액은 2조 원에 이르고 있다.

■ 창업 강국이 되기 위해 한국은 도전적인 인재 양성, 사업 모델의 혁신화, 풍부한 자금 투자를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인재 양성과 사업 모델, 자금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창조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세 요소에 잘 투자하면 투자한 시간과 자금 대비 창조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창조경제 지속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 부문에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나아가 기본교육과정에서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모델에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자금 측면은 투자 전용 펀드를 구성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영국처럼 진영, 이념, 당파를 초월하여 창업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람들 모두 창업 선도국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 ■ 뉴노멀 시대에 따른 선진국별의 대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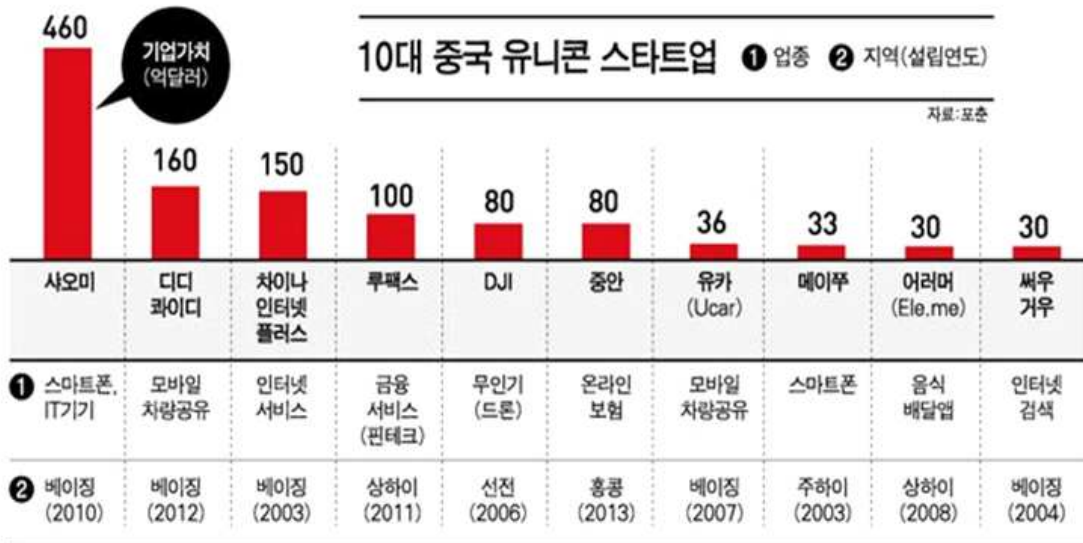
### : 뉴노멀 시대에 나라, 각국 공히 비슷한 컨텐츠로 접근

- 뉴노멀 시대(New Normal, 저성장·저소득·저금리가 새로운 경제적 표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저성장, 높은 실업률, 소득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마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비슷한 컨텐츠로 문제 해결 접근을 하고 있다.
- 미국은 2011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작하였다. Startup America Initiative는 창업 장벽 제거, 멘토와 창업가 연결, R&D 사업화 촉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15,666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83억 달러(약 9조 6천억 원)의 매출, 135,0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을 슬로건으로 한 창조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 이 정책 덕분에 영국은 2014년 기준으로 창조산업 서비스 수출 176억 파운드(약 31조 원), 디지털 기술 분야에 156,000개 일자리와 161억 파운드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었다.
- 프랑스는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 리옹, 보르도 등 주요 14개 도시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창업하는 전 세계의 창업가들에게 45,000유로(약 6,500만 원)를 지원해주고, 프랑스 비자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La French Tech 정책을 실시한 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짧은 창업 준비 기간인

4.5일로 단축되었다. 이 결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42만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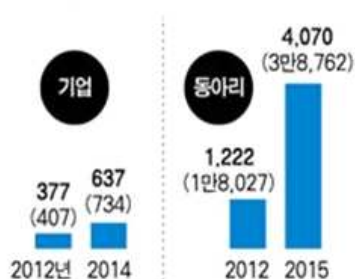
- 네덜란드는 스타트업델타(StartupDelta)로 창업을 보편화시켰다. 다양한 혜택으로 외국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내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네덜란드는 StartupDelta의 성과로 14년도 기준 신규 일자리 7만개가 창출되었고,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5억 유로(약 6250억 원)의 외국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 중국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600억 위안(약 10.5조 원)을 투자했다.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에서 1위안으로 줄였다. 창업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으로 중국 청년들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으로 444만개 스타트업과 35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벤처 회사)이 나타나게 되었다.



#### 국내 대학생 창업 현황

(단위:개, 괄호안은 학생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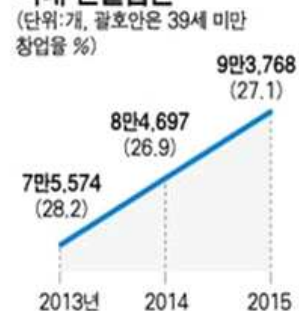
#### 한중 대학(원)생 창업 장애요인

(단위:%)



#### 국내 신설법인

(단위:개, 괄호안은 39세 미만 창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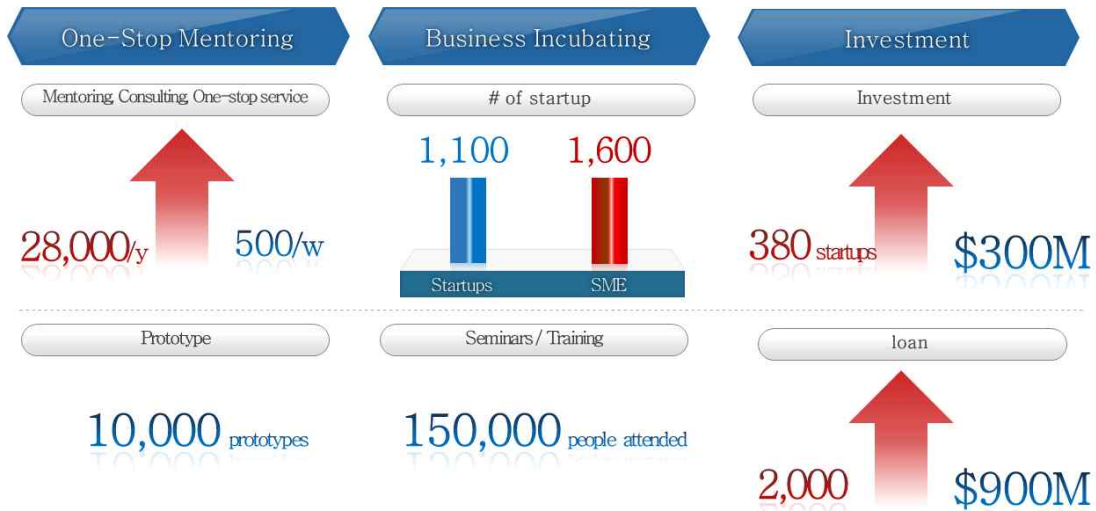
## ■ 한국의 성장동력, 창조경제

### :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 한국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개념이다. 국민의 창의성,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킨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창조경제는 시민,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대기업,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 한국은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스타트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경험, 마케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00곳의 스타트업, 1600곳의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380개 스타트업에 3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시켜줬고, 2000개 기업에 9천억 원의 대출을 연결해주었다.



- 한국은 훌륭한 인적 자원, 최고의 과학기술·ICT 경쟁력,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 정부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문화와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였다. 한국의 저력이 창조경제를 만나서 도전, 열정, 창의성, 집단지성의 문화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융합 되어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배려가 기반이 되는 문화로 성숙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니어 오블리주(Senior Oblige, 나이 든 자의 책무)라는 문화가 생겨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통해 적은 자금도 투자할 수 있어서 창업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창업선도국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우간다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1년에 10만 개 정도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기업은 3만 개, 투자된 금액은 2조 원에 이르고 있다.

## ■ 창업 강국을 향한 한국의 도전

### : 창업 강국 비전, 전략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 한국은 현재 창업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그 결과로 EU에서 4년 연속 혁신실적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뽑혔고,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지금의 시점에는 비전이 중요하다. 창업 강국은 도전, 열정, 혁신, 배려가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 현재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국가 경제력이 향상되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창업 강국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 창업 강국이 되기 위해 한국은 도전적인 인재 양성, 사업 모델의 혁신화, 풍부한 자금 투자를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인재 양성과 사업 모델, 자금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창조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세 요소에 잘 투자하면 투자한 시간과 자금 대비 창조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창조경제 지속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 인재 양성 부문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기본교육과정에서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생들의 창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뒷받침 된 대학 입시에 창업가, 창업기업 종사자 및 대표의 특례 입학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 교수, 대학원생의 창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인도, 유럽 등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 채용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 사업모델에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 창업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규제 프리존이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사업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진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늘려주어야 한다.
- 자금 측면은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세제 혜택으로 기업간 M&A 및 투자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세제 혜택도 확대시켜야 한다. 대학, 교수, 대기업 연구원,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과 시제품 제작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교내 창업·사내 벤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영국처럼 진영, 이념, 당파를 초월하여 창업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창업 선도국가로 통찰력이 필요하다.

## 230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한국은 정부 주도로 지역별 대기업을 유치하여 ‘창조혁신센터’가 만들어졌다. 외국에 비해 정책 혁신성이나 정책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답변** 대기업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느껴, 창조혁신센터를 찾아와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혁신 분야의 투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창조혁신센터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기업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창조혁신센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지역별로 진행하는 대기업 이외에 다른 대기업과도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대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하면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질문2** 지방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지방에도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멘토들이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진대

회에서 입상한 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질문3**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답변** 규제보다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오고 있다. 정부의 관심으로 창업부문에 있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